



2009년 제1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 성황리에 개최

-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목장으로 변모해 나갈 때

협회가 주최하고 지역아카데미가 주관한 2009년 제1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이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라비돌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5일(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28일(목) 수료식까지 3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2004년, 2008년 두차례 원유가 인상은 집회와 단식 등으로 너무나 힘들게 얻어냈으나, 원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낙농가들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낙농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농강대국들과의 FTA로 인해 우리 낙농산업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낙농가 스스로가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통해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목장으로 변모해 나가 앞으로 닥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행사는 교육생들이 미리 작성해 온 ‘목장분석 체크리스트’로 각자의 목장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거래장부 관리 등 목장경영 장부 작성법, 목장경영 회계작성법, 재무제표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갔다. 또한 관계리더십, 웃음치료, 낙농과 클래식 만남 등 지루하고 힘든 교육 중심에 교양프로그램을 가미하여 교육생들의 활기를 불러 넣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낙농은 사양관리나 유질관리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목장경영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는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양관리, 유질관리에 관한 교육은 사료회사,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경영실무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가들이 영수증 관리, 거래장부 관리, 회계장부관리 등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나가 목장에 대한 기록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2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은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여성낙농인 대상으로 8월 말경에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생은 40명이다. ☺